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애 상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애 상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노 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애 상

# 애 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 흥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석 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노 경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 목 차 】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2장 한·중 FTA에 대한 접근 .....	4
제1절 FTA의 개념과 유형 .....	4
1. FTA의 개념 .....	4
2. FTA의 유형 .....	5
3. FTA와 WTO의 차이점 .....	6
제2절 한·중 FTA 체결현황과 필요성 .....	8
1. 한·중 FTA 체결현황 .....	8
1). 한국 FTA 체결현황 .....	8
2). 중국 FTA 체결현황 .....	14
2.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	17
제3절 한·중 FTA 추진목적과 주요 쟁점 .....	20
1. 양국의 FTA 추진목적 및 전략 .....	20
1)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및 전략 .....	20

2).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및 전략 .....	22
2. 양국의 FTA 주요쟁점 .....	25
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	26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	27
3).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	27
제3장 한·중 FTA의 미치는 영향 .....	30
제1절 일반무역에 대한 영향 .....	30
제2절 농업에 대한 영향 .....	35
제3절 투자에 대한 영향 .....	36
1.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변화 .....	37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변화 .....	41
제4절 FTA에 따른 경제성장 .....	42
제4장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 방안 · 44	
제1절 양국 산업에 경제적 효과 .....	44
1. 한국에 경제적 효과 .....	45
2. 중국에 경제적 효과 .....	49
제2절.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52
1. 중국의 대응 방안 .....	53
2. 한국의 대응 방안 .....	54

제5장 결론 .....	58
참고문헌 .....	60



## 【표 목 차】

<표2-1>자유무역협정의 유형 .....	5
<표2-2>한국의 주요 FTA 체결 현황 은약 .....	8
<표2-3> 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은약 .....	14
<표2-4>에 한 · 중 FTA 예상 쟁점 .....	25
<표3-1> 한국의 대 중국 기업규모별 투자추이 .....	38
<표3-2> 업종별 한국기업에 대 중국 투자 .....	40
<표3-3> 2004년~2009년 규모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	41
<표3-4> 2004년~2009년 업종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	42
<표3-5> 한·중 FTA 체결 될 경우 7~10년 후 경제적 파급효과 .....	43

## 【그림 목차】

<그림 3-1>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수출 비중 추이 .....	31
<그림 3-2>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수입 비중 추이 .....	32
<그림 3-3>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무역 비중 추이 .....	33
<그림 3-4> 중국의 대미, 대일, 대한 수출 비중 추이 .....	33
<그림 3-5> 중국의 대미, 대일, 대한 수입 비중 추이 .....	34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AI, SHUANG

Advisor : Prof. Park, Ro-Kyung,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of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necessity, purpose, main disputed points,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Since China entered the WTO, communic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s became more frequent. Especially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East Asia, the communic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aspects lead to more and more attention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have strong complementary and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ness in resource, technology, capital, market, etc, especially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endowments elements of the mutual aid is quite high, Abundant labor and nature resources in China and production technology and open experience in South Korea make two countries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and make it a necessary tendency to build FTA between two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FTA is not only beneficial to their respective economic growth, but also is beneficial to the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on the one hand, China can reduce trade deficit to South Korea, and optimize industrial structure, China can reduce trade deficit to South Korea to get into the China market, which has enormous potential, and spur their economies rely on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to look for new growth point for the national economy. The two countries also can ensure the stability of export market by FTA and develop industrial division investment efficiency. But the strong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intensifies the imbalance of industry in the two countries and cause more concer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FTA. South Korea worries about that agriculture in China will impact their agriculture market, and China that Korea's manufacturing will hinder further development. The two countries afraid that once FTA is established, it will cause the opposition from related industries. In this situation, the two countries had better temporarily shelve the sensitive areas, and negotiate with each other in the field which presently is mature and easy to reach agreement. China and South Korea ought to make experiments in the main industries which they both have advantages, and first reach industries free trade agreement, As the European Union, first through the coal and steel joint and continues to expand the cooperative field so as to realize the economic integration. South Korea and China might as well realize the integration in individual fields, for example, they can first establish Korea and China electronics community. Wait for condition is ripe for extending to other fields, and eventually agreed on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면, 이러한 속도라면 2012년까지의 무역액이 약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애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 최대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한·중 양국 간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약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의미가 있다.

중국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수입관세율은 15%를 넘어선다. 특히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수입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중간재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여 왔던 한·중간 분업구조가 중요한 원인이기 하지만 중국이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중국은 내수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무역불균형도 해소하려 한다. 수출용 중간재 위주의 대 중국 수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향후 대 중국 수출을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용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다변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FTA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FTA 추진에 있어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경 안에서 중국에서 투자할 때 내국 인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상품이외에 서비스와 움직임이 될 것이다. 투자부문에 대한 투자 보호 · 투명성 · 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반영할 경우 때 중국투자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면 경쟁국에 앞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적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시

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sup>1)</sup>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FTA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접국가와의 FTA를 통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중의 FTA 여전히 대부분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상호의 실질적인 판단 의사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상호의 정부에서 중개조직 및 기업의 시스템 합작체제와 메커니즘을 건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양국이 FTA를 맺는 절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중 상호 경제 구조와 합작의 상호 보완성, 비슷한 문화는 한·중 경제 무역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무역 구조 및 현황을 근거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양국의 농업 및 제조업의 현황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실현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중 FTA 현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중 약국 간의 경제 무역 교류, 양국 간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FTA 체결을 더욱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아시아 경제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1) 양평섭(2010)[中國探究]피해 최소화 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주요 유형으로 FTA와WTO의 차이점 등등 과 한·중 FTA 체결현황 과 필요성 체계적으로 또한 한·중 FTA 추진목적과 주요 쟁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 한·중 FTA의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 방안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2장 FTA의 대응 유형

### 제1절 FTA의 일반 이론

#### 1. FTA의 개념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up>2)</sup>을 의미하며,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요소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

---

2)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경제통합체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라고 한다. 여기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통일시킨다.

에 관한 규정들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적·사회·문화의 교류 등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sup>3)</sup>

## 2. FTA의 유형

### 1). FTA의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 자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 <표2-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

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2003년 5월 22일, 서울: 동 연구소, 2000, Issue Paper p.6.

4)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법무부, 2003, p.88



유형	특징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국가 간 사장의 확대 또는 무역진출의 발판마력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형태 NAFTA가 대표적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협정 체결의 당사자 해당 지역협정에 당사국이 편입되거나 상대방의 시장 진출 칠레와 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체들이 협정 체결이 당사자 지역협력체 사이의 통합 NAFTA 또는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자료: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서울: 인텔에듀케이션. p.3.

첫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한·칠레 FTA, 한·미 FTA 등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예이며,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 (또는 상대방 국가)에 1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NAFTA와 MERCOSUR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MERCOSUR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 3. FTA와 WTO 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예이다. FTA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서 최혜국대우(最惠国待遇)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多者主义)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 는 양자간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화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약180개이며 이미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을 고려하면 총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역 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질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 제2절 한 · 중 FTA 체결현황 과 필요성

### 1. 한 · 중 FTA 체결 현황

#### 1). 한국 FTA 체결 현황

한국 FTA 체결 현황은 아래<표2-2>과 같다.

<표2-2>한국의 주요 FTA 체결 현황 은약

구 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협 상 발효	칠레	2002.10.25협상 타결 발표-2004.4.1발효
	싱가포르	2004.11.29협상 타결 발표-2006.3.2발효
	EFTA	2005.7협상 타결 발표-2006.9.1발효
	ASEAN	<p>2005.2협상 개시, 2007.6.1상품협정 발효</p> <p>2007.12 상품협정 태국 타결</p> <p>2008.1.1 상품협정 필리핀 발효</p> <p>2008.7.1 상품협정 브루나이 발효</p> <p>2008.10.1 상품협정 라오스 발효</p> <p>2008.11.1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태국제외 전 국가 발효)</p> <p>2009.5.1 서비스협정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p> <p>2009.9.1 투자협정 발효(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행중)</p> <p>2010.1.1 태국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 의정서 발효</p>
	인도	<p>2006.6.5-9 협상 개시</p> <p>2008.9.22-25 CEPA협상 실질적 타결</p> <p>2010.1.1 CEPA발효</p>
	중미	2010.10 공동연구개시(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동화국)

서명 · 협상 타결	미국	2006.6.5-9 협상 개시 2007.4.2 협상 타결
	EU	2007.5.6 협상 개시 2009.7.13 협상 타결
	페루	2006.11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8.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8.8.30 협상 타결
협상 중	캐나다	2005.7.28 협상 개시 2008.3.25 13차 협상
	멕시코	2007.12.5-7 협상 개시 2008.6.9-11 2차 협상
	GCC	2008.7.9-10 협상 개시 2009.7.8-10 3차 협상
	호주	2008.8.11 예비협약 2009.5.19-22 1차 협상 개최 2010.5.24-28 5차 협상 개최
	뉴질랜드	2008.9.29-30 1차 예비 합의 2009.6.8-12 1차 협상 개최 2010.5.12-14 4차 협상 개최
	콜롬비아	2009.12.7-9 1차 협상 개최 2010.10.4-8 4차 협상 개최
	터키	2010.4.26-30 1차 협상 개최 2011.3.7-11 3차 협상 개최

협 상 준 비 공 동 연 구	일 본	2002.7.9-10 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 회의 2003.10.2 8차 산관학 공동연구회 회의 및 최종 보고서 채택 2003.12.22 1차 협상 개시 2004.11.1-3 잠정중단 2010.9.16 1차 국장급 협의·개최
	중 국	2007.3.22-23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2010.5.23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 2010.12.1 17차 한·중 경제공동회위 개최
	한·중·일	1999 3국 정상화의 성과사업으로 추진 2003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3국 간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및 산업별 영향 분 석을 진행 2009.10.10 민간공동연구(03년-09년)를 종료하 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합의 2010.5.6-7 한·중·일 신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2011.3.30-4.1 한·중·일 신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
	MERCOS UR	2005.5.4-5 1차 공동연구 개시 2007.10.31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 2009.7.23 추진 협의 MOU체결 2009.7.23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회의체 회 의 개최 추진 중
	러시아	2007.10.31-11.1 1차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 2008.7.8-9 2차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
	이스라엘	2009.8.17 민간공동연구 제1차 회의 2010.4.15 민간공동연구 제3차 회의
	SACU	2008.12.9 양국 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협 의
	베트남	2010.6.23-24 1차 공동작업반 회의 2011.3.16-17 3차 공동작업반 회의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 (1). 한 · 칠레 FTA

한 · 칠레 FTA는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칠레 FTA협상간행을 합의 한 후, 약4년 동안의 협상이 계속되었고 2002년 제6차 FTA 협상에서 논의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한 · 칠레 FTA는 한국의 최초 FTA이며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별점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국내화 하는 내용을 채택하였다. 민감 품목에 대해서 협상 종료 이후 논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칠레는 기준에 이미 한국 이외의 남미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남미 진출에 교두로 역할 하였다.<sup>5)</sup>

#### (2) 한 · 싱가포르 FTA

한 · 싱가포르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출발하였다. 2003년 정부간 FTA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4년 11월 약국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이다. 한국이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한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싱가포르 FTA는 내용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 투자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 · 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

---

5)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안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FTA 이다. 이는 2005년 1월부터 EFTA와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7월 중국에서 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FTA는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다. 투자자유화에 대한 논의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점 등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층 양호한 환경을 마련케 했고, 개성공단생산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부분 역시 기뻐할 만한 성과이다. 한·EFTA FTA는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sup>6)</sup>

### (4) 한·ASEAN FTA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등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sup>7)</sup>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ASEAN FTA는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 교역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FTA 이다. 동시에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반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발전정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개방의 속도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3년 먼저 협상을 시작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sup>8)</sup>

---

6)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7) 상동

8)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 (5) 한 · 인도 FTA

2006년 1월 제4차 한 · 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곧이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한 · 인도 CEPA협상개시를 결정하였다. 2008년 9월 12차 협상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협상 전 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타결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를 구성하는 거대 신흥경제 대국이다. 한 · 인도 CEPA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확보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접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부문은 거의 포함되었다. 특히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가능성은 인도에서 한국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이동의 양허와 관련하여 인도 곡립전문가 유입이 촉진될 경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sup>9)</sup>

## 2. 중국 FTA 체결 현황

### <표2-3> 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은약

---

9)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구 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협상 발효	CEPA	2003 발효-2004, 2005, 2006 보충 협의 발효
	ASEAN	2000.11 협상 타결-2002.11.4발효
	Pakistan	2003.11.3발효
	Chile	2004.11.18 협상 개시 2005.11.18타결 2006.10.1 발효 2008.4.13 서비스무역 봉층 협의 타결
	New Zealand	2008.4.7 타결 2008.9 발효
	Singapore	2006.8 타결 2008.9 발효
	Peru	2007.9.7협상 협상 개시 2008.11.19 협상 종결 2009.4.28 타결
	ASIA-PA CIFIC	1975.4.23 협상 개시 2005.11.2 ASIA-PACIFIC 개명(更名)
	C o s t a Rica	2008.11 협상 개시 2010.4.8 타결
	협상 중	海合會
Australia		2005.6.30 협상 개최 2010.2.24 4차 협상
Lceland		2008.4.11-12 협상 개시 2008.4.28-30 4차 협상
Norway		2007.6.19-20 협상 개시 2010.9.14-16 8차 협상 개최
SACU		2004.6 협상 개시
Suisse		2011.1.28 협상 개시 2011.4.13

협상 준비 · 공동 연구	K T A (인 도)	2007.10.21-22 공동연구회 회의 2010.1.20 8차 공동연구회
	한국	2004.9 ASEAN+3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11월 연구 종료 2007.3.22-23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2010.2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회의 2010.5.23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 2010.5.28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간서 서명 2010.9.28-29 정부 간 서전협의 1차 회의 개최 2011.4.11 통상장관회담
	한 · 중 · 일	1999 3국 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추진 2003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진행 2009.10.10 민간공동연구(03년-09년)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합의 2010.5.6-7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2011.3.30-4.1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

자료: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 (www.mofcom.gov.cn)

### 3. 한·중 FTA의 필요성

####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sup>10)</sup> 한·중 FTA는 따라서 일·중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내수주도의

---

10) 蔡鴻鵬, “中新FTA對中韓FTA的示”, 上海社會科學院APECT研究中心.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또는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sup>11)</sup> 현재 중국은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칠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sup>12)</sup>

###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

---

11) 자유무역협정 FTA보고서, 2008.

12) 유진석, 박승호, “최근 한중무역 현황과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2007-1.

나라 생산성행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한·중 FTA가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의 영향에 못 미치지만 양국의 GDP와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FTA 등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산업분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3)</sup>

##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이익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일 3국의 FTA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또한 양국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무역위원회, “한·중 FTA 무역구제협상전략”참고, 2006.

14) 김세영, 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도서출판, 2003.8.

### 제3절 한·중 FTA 추진목적과 주요 쟁점

#### 1. 양국의 FTA 추진목적 및 전략

##### 1)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및 전략

###### (1)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20%에 달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 FTA의 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더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ASEAN(상품, 서비스), EFTA 등과 FTA가 발효되었고, 인도, 미국, EU, ASEAN(투자) 등과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다. 만약에 한국과 중국, 일본간의 FTA가 체결되면 한국정부의 FTA 추진 목표는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이다. 중국은 지금 세계 인구의 22%와 세계 GDP의 5.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고속발전에 세계 제3위권이 되었다.<sup>15)</sup> 이러한 고속성장에 따라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수입시장은 2015년 실질구매력기준 GDP는 94,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대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

---

15) 중국 농업부, “2007년 중국농업발전보고”

함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셋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로 국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FTA 등 제고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산업 분업구조조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중 FTA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체결은 경제와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 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온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국의 FTA 전략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FTA 체결은 불가피하다.

첫째, 한국정부는 2003년 추진 로드맵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전략”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은 동시다발적이다. 이미 FTA에 뒤져있던 한국은 FTA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에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 보완하여

---

16) 이근영,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009.7.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둘 이상의 나라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에서 상대국과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한 국가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주력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7)</sup>

둘째, FTA 추진 목표는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선 일본, 싱가포르, ASEAN<sup>18)</sup>, 미국, EU, 중국 등을 FTA 추진대상국으로 정하였다.

셋째, 추진하는 FTA의 내용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해야 한다.<sup>19)</sup>

넷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FTA에는 사회, 경제적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국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2).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및 전략

### (1).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 목적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2005)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수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별로는

---

17) 박순찬, “한국 FTA추진의 전망과 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2004.5.

18)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1976년 6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이근영,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009.7.

인접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동기가 우선적이며, 기타 해외시장 창출,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중국의 FTA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는 에너지 자원 확보, 시장 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의 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차이의 해소 목적이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중국보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더 높으며, 중국은 한국을 기술수준 등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 1978년 중국 개혁 후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 서방국가(西方國家)로부터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와 성진기술을 도입해 왔다. 중국 정부는 감세와 토지 무상 제공 등 정책 특혜를 통해서 큰 규모로 FDI를 유치하였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선진 외국기술을 유입 하였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인해 많은 사회, 경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다. 더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기술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기업에게도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보다 경제,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차이의 해소를 통한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가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협력권의 확보이다.

---

20) 이성비, “중국의 FTA 추진실적에 따른 한·중 FTA 전략”,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일본 동아시아 지역협력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중 FTA는 중일관계의 차원,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확보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보다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에서 뒤쳐져있던 중국은 최근 국력 상승에 따라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국의 석학들이 연구 중에 있는 한·중·일 FTA는 이상적이겠지만, 한·중 간 FTA의 선 체결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일 FTA가 선 체결 되면 중국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한·중 FTA가 선 체결되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진다.

셋째,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도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위기 관리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중 FTA체결로 한국의 대 중국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북·중 3개국간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21)</sup>

한·중 FTA 체결되고 한국, 북한과 중국의 삼각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경제협력체를 중국이 선도하는 구도가 될 것이므로 이는 전략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다.

## (2) 중국의 FTA 전략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은 2005년 7월 “지역경제협력 참여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

21) 이근영,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009.7.

(FTA)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지역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시장개척, 주요 채널확보, 주요 자원 및 에너지 확보”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적인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다차원적인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동북3성(지린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노후공업의 진흥전략을 촉진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대외경제개방 환경을 마련하여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경제 성장의 엔지역할을 하게 되며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정부는 밝히고 있다.<sup>22)</sup>

## 2). 양국의 FTA 주요쟁점

양국은 각자의 민감 품목이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부문에서 중국의 압도적 우세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개방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나, 농수산업과 인력이동 등 중국이 개방을 요구에 한국은 어려운 저지에 놓일 것이다. 중국의 절강 생산 기술은 한국과 기술격차가 크다.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이 한국의 절강, 특별히 첨단철강 제품을 많이 수입할 예정이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와 화공업체는 상당히 비우위적으로 큰 어련운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과 이동통신에게도 큰 우려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4-1>에 한·중 FTA 예상 쟁점을 알 수 있다.

<표2-2>에 한·중 FTA 예상 쟁점

---

22) 중국상무부 FTA보고서 2009.

한국측 관심시장	중국측 관심시장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관세 철폐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가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관 금지 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농수산물, 석유, 기계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 개방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동식물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비관세 장벽)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대중국 특별세이프 가드 해제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2011.4. p. 200.

### (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및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규모의 효과에 의하여 한국의 농업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한국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매우 빈약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은 그에 비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예외 없이 FTA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추진은 농업개방 수준을 WTO 다자간 협상의 결과 수준에 고정하는 제약조건 하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한·중 FTA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농업의 민감 품목을 추출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민감 품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주요 쟁점은 예외조건의 수준과 민감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될 것이다.

##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경우 사업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몰리게 되어 이러한 산업으로서의 자원집중이 이루어져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저부가가치화 산업부문은 필연적으로 산업적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한국의 실업증가 및 중소기업의 몰락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원만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내 투자의 중국 투입이 더욱 쉬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한국 자본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응 투자확대로 인해 한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의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한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중국으로서의 투자확대가 한국의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FTA는 농업 및 제조업 등의 1,2차 산업의 관세철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및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범분야의 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 FTA나 개도국 사이에 개도국 사이에 체결된 FTA에서는 주로 회원국 간 무역장벽 제거에 관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관

세철편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지적 재산권 등의 협정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 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집중현상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반덤핑

중국은 1997년 이후부터 2004년 5월까지 중국이 제기한 총 30건의 반덤핑 규제 중 22건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반덤핑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FTA를 하는 주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저해하는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중국 내 가격으로 판정하지 않고 제3국이 가격으로 심사 및 판정을 행해 왔으나, 최근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반덤핑에 관한 심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자국의 반덤핑 조례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중국은 2002년 1월 6일 WTO에 가입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해외수출이나 투자 장벽이 폐지되거나 낮아지고 반덤핑 등의 무역법이 WTO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의 FTA체결국 안에서의 인정이고,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받게 되어 상계조사 실시 시 특별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2002년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의해 중국과의 FTA 협상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대하여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WTO의 보조금협정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규범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된다.

#### 마.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 제1의 모조품 국가로서 WTO가입 이후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이 TRIPs에 따라 관련 국내 법규들을 정비한 상태이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도 TRIPs 협정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 분야를 강조하여 중국의 미흡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 최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조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바. 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협정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각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교육이나 의료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소매업, 건설, 금융 등 분야에서 중국은 강력한 현지주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전기·정보통신·의약품·의료기기의 상호인정, 기술 자격 인정, 환경협력, 공동의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도 이슈로써 검토될 수 있다.

## 제3장 한·중 FTA의 미치는 영향

### 1. 일반무역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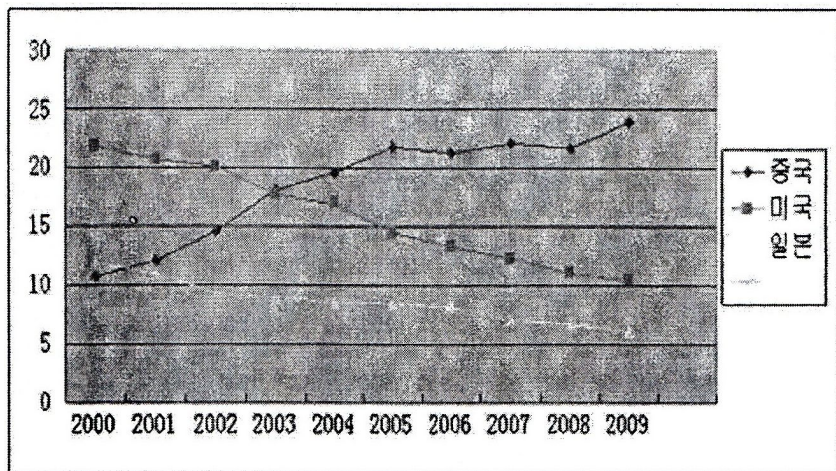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관세율은 매우 높다. 특히 신발류, 자동차, 섬유류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높은 관세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20개 항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3.1%이며, 이 중에서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 등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5%이다. 섬유에 대한 관세율은 15~23%이고, 신발에 대한 관세율은 24%이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8%이다. 이것으로 중국이 아주 높은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13~17% 부가가치세도 징수하고 있다. 중국의 통관 절차는 복잡하며 불투명하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통관절차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허가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한도액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에 가입 후 개방이 많이 되었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블랙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만약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많은 통관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다. 이것은 한국 투자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전기, 전자제품, 기계, 어류 등에 대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 중국과의 교역 현황을 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의 10.7%에서 2003년 기점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합한 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23.9%이고, 제2위 미국이 10.4%, 제3위 일본이 6.0%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09년에는 23.9%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미국은 21.4%에서 10.4%로 일본은 11.9%에서 6.0%까지 감소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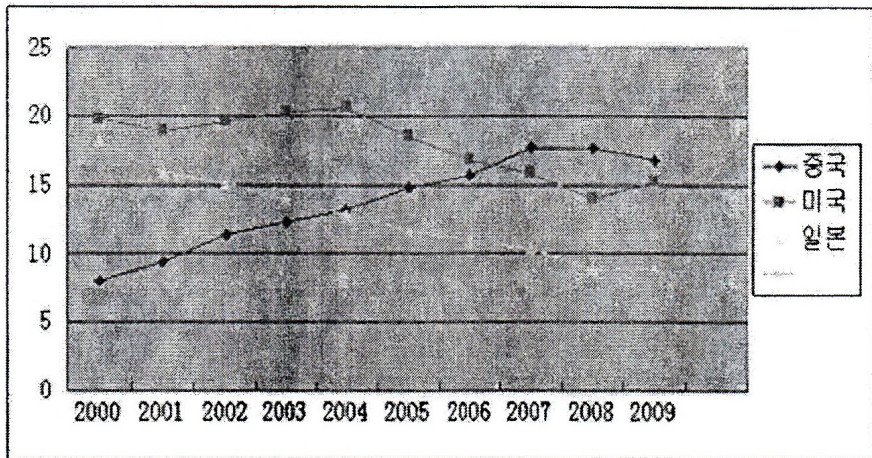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10. 2)

수입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수출대상국 2위를 차지했고, 2007년말 기준으로 수입대상국 1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16.8%이고, 제2위 미국 14.0%, 제3위 일본은 8.8%를 각각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8.0%에서 2009년에는 16.8%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일본은 18.2%에서 9.0%로 미국은 19.8%에서 15.2%로 감소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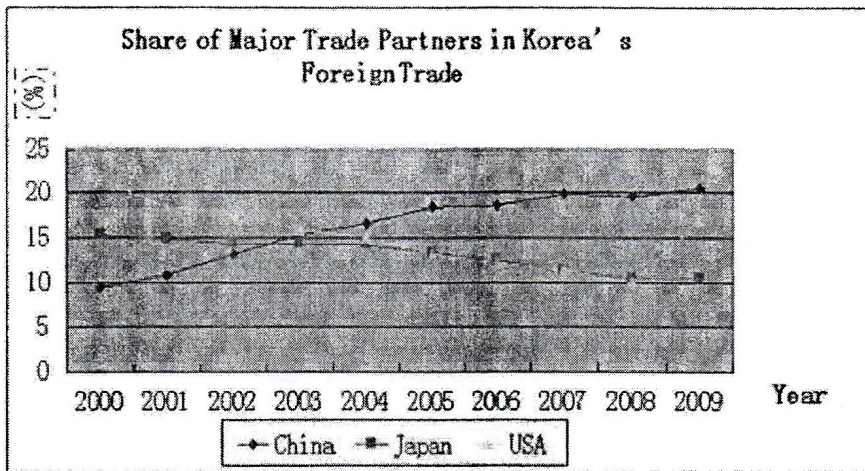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10. 2)

중국과의 교역규모 추이를 보면 2000년 초에는 교역규모가 변화가 있으나 2002년 이후 수출과 수입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4%에서 2007년에는 22.1%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2%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21.7%이고

2009년에는 20.5%를 기록하였다.

무역규모는 1992년의 63.79억 달러로 2009년까지 140.95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9.4%에서 2009년에는 20.5%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미국은 21.4%에서 16.9%로 일본은 15.3%에서 10.4%까지 감소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명실 상부한 제1위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그림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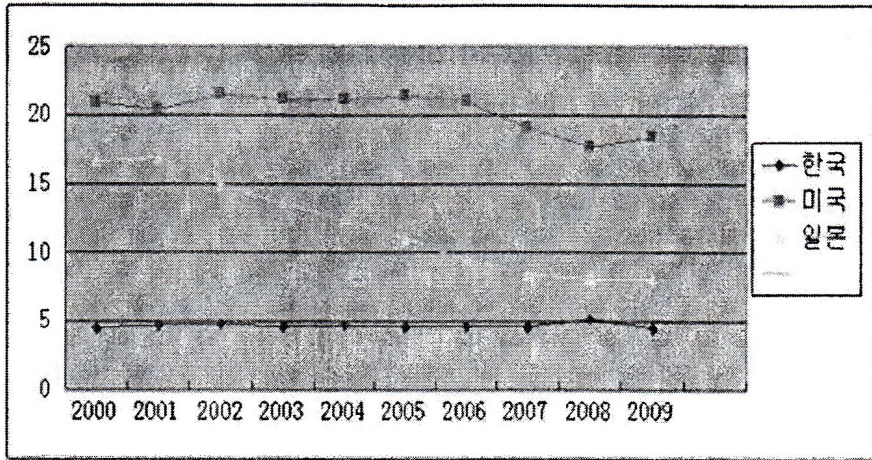
<그림 3-3> 한국의 대미, 대일, 대중 무역 비중 추이

(단위 : %)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10. 2)를 재구성함.

<그림 3-4> 중국의 대미, 대일, 대한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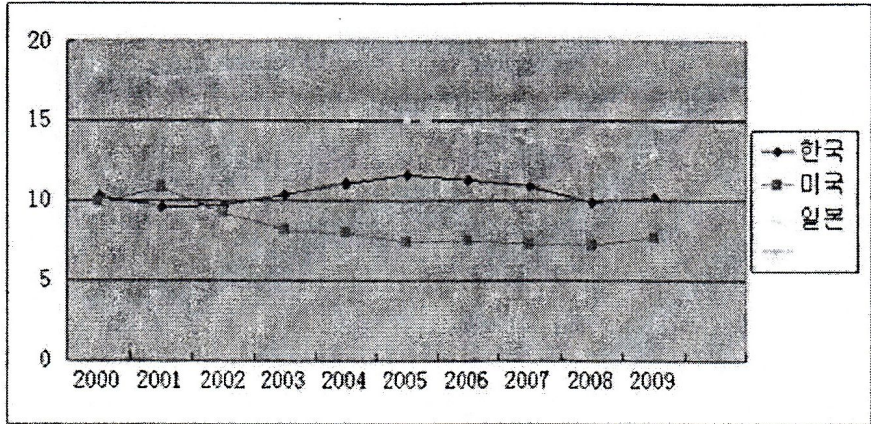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10. 2)

한편 중국의 한국 경제 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지속적으로 중국의 4대 수출시장의 위치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큰 변화없이 매년 약 4.6%로 유지되고 있다. 제1위 미국은 중국 수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약 20%에 이르고 있다. 제2위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중국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0년 16.7%부터 2009년 8.1%까지 떨어졌다.(<<그림 3-4> 참조)

<그림 3-5> 중국의 대미, 대일, 대한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10. 2)

수입에서도 한국은 2000년 중국의 4대 수입국에서 2005년 2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수입 비중은 2000년 10.3%에서 2009년 11.6%까지 상승하였다. 제1위 일본은 2000년 18.4%에서 2009년 13.1%로 떨어졌다. 제4위 미국은 2000년 9.9%에서 2009년 7.7%로 떨어졌다.(<그림 3-5> 참조)

## 2. 농업에 대한 영향

한·중 간 농업교역의 특징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한·중 FTA가 농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한·중 농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부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농사와 농산물 소비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농산물시장에서는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중국농업의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은 한국보다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일방적 무역의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문제도 없다. 따라

서 만약 한·중 FTA가 체결하게 되면 농산물 무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중국 농업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농업이 개방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은 제조업과 다른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해서 FTA 이익을 획득하게 것이 힘들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농업수입이 확산될 것이므로 한국농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한·중 간 제조업에서 보완적 산업구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무역도 장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근접성이 높아질 것이고 양국간 분업도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에 무역확산을 통해서 한·중 양국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경쟁력이 강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많기 때문에 중국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되고,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예정이며, 한·일 FTA도 단기간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국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의류, 가죽, 목재가구 등 열세 분야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 3. 투자에 대한 영향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이전인 1988년 세계 총 교역대비 NAFTA 역내교역 비중은 6.74%였으나 최근에는 8.83%로 상승하여 지역내 교역비중이 31% 증가하였다.<sup>23)</sup> 또한, 1988년 NAFTA의 경험은 FTA로 인해 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부터 소득이 낮은 국가로의 직접투자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정도를 정략적으로 측정하기는

23) 이근영,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009.7.

어려우나 미국으로부터 멕시코로의 직접투자는 적어도 2배는 증가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비추어 한·중 FTA체결로 지역내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내 분업을 통한 제품차별화 분업, 특화 분업의 형태로 산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비교우위 구조가 보다 근접해짐에 따라 지역 내 직접투자와 산업내 무역의 유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만 관세철폐에 따라 직접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이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출 대체형 직접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수출 대체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역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기업내 무역이 증가함으로써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FTA에 의한 무역장벽의 철폐에 따라 가격 왜곡이 시정됨으로써 무역패턴이 비교우위 구조를 반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의 증가요인도 발생함으로써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한·중간 보완적인 산업기술 협력, 투자협력, 지역 내 인프라 협력이 병행되는 경우 지역 내 수출 증가가 한층 더 촉진될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의 고도화와 국제적인 산업 조정 차원에서의 산업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1).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변화

<표3-1>을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은 모두 증가하였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중국경제가 빨리 성장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었다. <표3-4>와 같이 2007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의 투자금액은 각각 51.4%, 25.1%, 0.6%로 증가하였으나, 투자건수의 경우 대기업은 18.3%로 증가한 반면 개인은 8.7%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투자건수의 감소는 중국 투자환경 변화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한국이 대 중국의 투자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4.5%, 15%로 감소하였다. 2009년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41%, 42%로 감소하였다.

<표3-1> 한국의 대 중국 기업규모별 투자추이

(단위 : 건수, %, 천불)

년분	기업규모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04	대 기 업	296	7.4	1,187,399	50.6
	중소기업	2,208	55.5	981,461	41.7
	기 타	1,476	37.1	183,344	8.7
	합 계	3,980	100	2,352,204	100
2005	대 기 업	346	7.5	1,417,553	50.5
	중소기업	2,368	51.2	1,139,253	48.6
	기 타	1,912	41.3	252,828	9.9
	합 계	4,626	100	2,809,635	100
2006	대 기 업	314	6.7	1,883,777	55.0
	중소기업	2,375	50.7	1,228,310	36.0
	기 타	1,998	42.6	311,862	9.0
	합 계	4,687	100	3,423,959	100
2007	대 기 업	324	6.9	3,335,201	61.5
	중소기업	2,333	49.8	1,608,781	29.7
	기 타	1,928	45.3	303,927	8.8
	합 계	4,685	100	5,428,909	100
2008	대 기 업	309	9.5	2,191,518	58.4
	중소기업	1,757	54.0	1,374,666	36.5
	기 타	1,191	36.5	182,240	5.1
	합 계	3,257	100	3,748,473	100

2009	대 기 업	211	10.1	1,269,244	61.1
	중소기업	1221	58.4	715,822	34.4
	기 타	657	31.5	96,872	5.0
	합 계	2,089	100	2,081,938	100

※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2010. 2)를 재구성함.

2009년 기업규모별 대 중국 투자금액 비중은 <표3-4>와 같이 대기업 61.1%, 중소기업 34.4%, 기타 5.0%로 2004년 보다 중소기업과 기타의 비중이 각각 7.3%, 2.7%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의 비중은 9.5%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하였으나, 투자환경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등은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기업에 대 중국 투자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산업간 투자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말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건수 기준으로 14.05건 투자금액 기준으로 16.5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 중국 투자금액의 79.3%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대 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5-2>참조)

이러한 제조업 분야의 대 중국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잉여 노동력도 많으며 한국의 임금수준보다 매우 낮다.

둘째,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노동집약형의 기업이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중국 정부는 초기에 비제조업 분야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했다.

넷째, 중국 경제개방 초기 단계에서 중국 정부도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표3-2> 업종별 한국기업에 대 중국 투자

(단위 : 천불)

업종별 분류	신고 건수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농업, 어업 및 임업	24	7	16,628	51	6,704
광업	8	6	26,027	16	2,61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	3	1,196	5	1,007
하수, 폐기물처리, 완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0	5	775	19	591
건설업	54	30	112,221	60	58,648
도매 및 소매업	279	154	203,485	488	149,700
운수업	28	13	17,055	56	21,997
숙박 및 음식점	40	26	44,071	4	35,1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4	29	26,196	93	18,010
금융 및 보험업	14	5	58,360	21	49,6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4	63,490	24	25,35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5	33	78,791	97	29,609
교육서비스	17	10	6,094	35	4,9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2	824	173	7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34	10	84,617	2	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7	2,656	28	2,070
사업기술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11	1,705	49	2,486
가사 서비스업	1	1	800	3	500
가사 서비스업	1	1	14,848	1	14,848
제조업	1,405	384	1,879,660	2,762	1,651,629

누 계	2,089	739	2,623,852	3,936	2,081,937
-----	-------	-----	-----------	-------	-----------

※ 자료출처 : 한국지식경제부, 통계자료(2010. 5)

##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변화

중국의 대 한국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 이하로 소규모로 나타났다. <표 3-3>을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 1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로 2,833건으로 투자금액은 1,95억 달러이고 총투자건수의 97.9%를 차지하였다.

<표3-3> 2004년~2009년 규모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단위 : 천불)

투 자 규 모	투자건수	투자금액
100만 달러 미만	2,833	195,156
100만 달러 ~ 1,000만 달러	55	117,764
1,000만 달러 ~ 1억 달러	3	118,890
1,000만 달러 ~ 1억 달러	4	1,722,720
총 계	2,893	2,154,537

※ 자료출처 : 한국지식경제부, 통계자료(2010. 2)를 재구성함.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업종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된다. 신고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에서 2009년말 까지 누계 243건, 12.27억 달러에 달했고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건수가 8.5%, 투자금액이 5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2,599건, 9.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차지하는 비중

은 투자건수가 89.8%, 투자금액이 42.7%에 달했다.(<표5-4>참조)

<표3-4> 2004년~2009년 업종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단위 : 천불)

업종별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농업, 축업, 수산업, 광업	26	0.9	3,345	0.2
제조업	243	8.5	1,227,356	56.9
서비스업	2,599	89.8	920,290	42.7
전기, 가스, 수도, 건설	25	0.8	3,539	0.2
총 계	2,893	100	2,154,531	100

※ 자료출처 : 한국지식경제부, 통계자료(2010. 2)를 재구성함.

### 3). FTA에 따른 경제성장

양국 간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Dynamic Effect)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지역 내 시장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지역 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FTA 등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통하여 중국의 고도성장 현상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또한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국과의 산업 분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는 한·미 FTA의 10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2007년 기준)로 미국(1.5%)에 비해 지난해 6.5배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7~10년 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3.17%(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하지 않은 것)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미 FTA(1.99), 한·EU FTA(1.99), 한·일(1.05) FTA 체결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크다.

<표3-5> 한·중 FTA 체결 될 경우 7~10년 후 경제적 파급효과

대안	GDP	수출확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농수산물 생산
농업-제조업 관세 완전 철폐 경우	3.13% 상승	5.43% 상승	94,924명 증가	14.7% 하락
농업-제조업 관세 완전 철폐 되고, 서비스산업 무역장벽 50%감축될 경우	3.13% 상승	5.43% 상승	96,836명 증가	14.7% 하락

※자료출처 : 김영미, “한·중 FTA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참고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제도개혁이나 구조조정을 비교적 적게 행하고 산업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산업별로 자동차, 철강, 중화학제품 등은 유리하지만 농·수산물, 의류, 목재 등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저부가가치 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리고 제조업 가운데 임금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섬유, 기구, 일반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대 중국투자 급증 시 한·중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률도 증가할 수 있다.

## 제4장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효과 및 대응 방안

### 제1절. 양국 산업에 경제적 효과

2008년 현재 한중 교역은 대체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7월 중한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27.9% 증가하였으며, 대 중국 수입은 32% 증가하였다. 2008년에 들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회복된 데에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에 따라 중국 내 수요가 호조를 띤 것 이외에도 위안화의 절상,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최근 한중 무역구조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대 중국 수입 증가율이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을 산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기별 대 중국 수입 증가율이 29.7%로 같은 기간 대 중국 평균 수출증가율을 10% 이상 상회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대 중국 수입증가율은 안정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변동성이 많아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대 중국 수출증가율에 대한 표준편차는 17.3으로 대 중국 수입증가율이 표준편차 7.1의 2.4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보이던 안정적 성장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2005년에 232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대비 흑자비율도 2004년 25.4% 최고로 2007년 13.1%, 2008년 7월 누계 10.6%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가 일부 품목에 국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무역통신기기,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대 중국 10대 무역흑자 품목이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품목 중에서 유가 상승 효과가 큰 석유제품에서 흑자규모가 대폭 증가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제품 등 첨단 부품 교역에서의 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24)

그러나 한중 FTA 체결 시에는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발 확대와 산업부문에서 양국의 비교 열위 산업에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FTA체결에 있어 개방 대상 산업의 범위를 합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결정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양국은 비교 우위의 서로의 장점에 따라 중저가 공산품 시장이나 농업부문에서 많은 교역을 추진적인 효과 이외에도 FTA 체결 국가 간 지역주의를 통한 역대 무역 강화 와 타 경제 블록, 예를 들어 EU, NAFTA,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과의 배타적 영향적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계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화하려는 국가적 정책으로 볼 때, 현재 세계경제 2위의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 FTA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조속한 추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중 FTA 체결은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에 있어 해당 산업분야에 커다란 위기와 기회로 다가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향후 양국 간 교역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중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140억 달러 증가하고 전체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1. 한국에 경제적 효과

---

24) 이치훈, “2009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요인 점검”, [Issue Analysis], 2009, p.4.



## 1). 농업부문의 교역량의 증가

한국은 한중 FTA 체결 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극히 저조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재 농산품 관세율에 따라 한국 내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중국산 농산품은 관세율을 부과하고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산보다 높다. 이미 소비자들의 소비 기준은 품질이 보장되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것은 중국산을 선택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하여 대상 품목이 확대될 때 타격을 받을 농산품의 종류가 확대될 수 있으나, 소비자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쌀과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면 여타 농산품의 극적인 수입량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기우일 수도 있다.

## 2).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의 감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거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한국은 중국에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한국으로 농산물, 방직품 등 저가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점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무역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개발과 재외수출에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중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무역흑자 현상도 계속될 것이다.<sup>25)</sup>

25) 정환우, “2008년 한-중간 기동단계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2008), p.30

### 3).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한국 투자진출 기업 및 여타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이다. 최근의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부품 조달 현지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중국진출 초기의 한국산 원부자재의 수입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조달을 현지화하고 있다, 최근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06년 KOTRA 보도에 따르면 현재 원부자재 조달비율은 중국(52.7%) 한국(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중국 진출 초기의 44.8%에서 2006년 37.8% 하락하였고, 향후 원부자재 조달 계획 역시 현 상황을 유지(46.8%)하거나 중국 위주로 변경(51.2%)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앞으로는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 중국 투자증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원부자재 수출의 증가를 초래하다 점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생산업체 경쟁력 상승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업체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수입 원부자재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역시 2009년 말 전체의 34%에서 2010년 1사분기에 42%로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63%가 중국 내에서 원부자재 조달을 고려중인 것이다.

### 4). 관세구조 및 기술 이전 효과에 따른 교역량 증가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양국 간의 FTA 체결은 한국의 첨단 산업의 중국진출을 확대하고 이는 현지에서 이와 연관된 산업의 창출과 중국 내 산업화를 촉진하여, 양국 간 경제결합도 및 상호의존도를 심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반산업에 대한 기초 및 중간 생산재의 유통을 활발히 할 것이며, 생산재의 유통과 더불어 경영관리를 위한 인적 교류와 장기적으로는 이에 따르는 기술협력이 유발되어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의 자동차부품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23%이며 현대. 기아차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 되면 대중 부품 수출은 2003년 9억 4천만 달러, 2004년에 17억 달러, 2004년에 17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주로 기어박스, 운전박스, 자동구동차축들을 수출하고 대중 부품 수입은 시계, 오디오, 스피커 등 저부가가치의 비 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여Y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현재 80여개 업체 100개 법인이 단독 투자 또는 합작의 형태로 북경과 강소성, 산둥성 등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0년경 1200만대에 당할 전망으로 자동차 부품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부품 업체는 중국 내 완성차 업체와 전 세계로 진출할 계기로 삼고 있다. 2010년경 현대. 기아 차의 생산체계가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업체의 투자는 크게 증가 될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 비관세장벽도유지하고 있어 FTA에서 이것이 제거되면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갖추어 한중 간 산업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쟁력 없는 노동집약적 부품은 현지진출이 확대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으로 급격히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거나 사양화될 전망이다.

한중 FTA체결은 양국 간 관세의 철폐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교역이 활발할 것이고 저생산성의 저부가가치 품목은 중국의 추월이 예상되며 고부가 부품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관세 장벽인 부품수입

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수입이 완성차에 관세를 부과하는“핵심부품 수입 관리법안”을 쉽게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이 시장 통합으로 인해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기지는 급속히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고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기술 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ABS<sup>26)</sup>, EGI<sup>27)</sup> 시스템, 서스펜션, 피스톤, 윌펌프 등 기술수준이 앞서고 있으나 오디오 시계 등 노동집약적 부품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중국시장의 한국제품을 보방한 유사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 중국에 경제적 효과

### 1). 높은 비중의 대 중국 직접투자

저임금 및 낮은 토지가격 등 생산 요소의 우위를 이유로 많은 한국 기업은 중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왔는데 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 발생량이 많은 사업의 투자는 거부, 첨단산업, 금융, 서비스업 유치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가 촉진되는데 투자 장려 업종에는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국에 투자된다면 중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장

---

26)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브레이크장치이다.

27) Electronic Gasoline Injection 전자제어식 연료분사장치이다.

차 중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업 경영 능력 또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에 중국에서 통과 예정인“순환 경제법”은 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비롯한 환경규제 강화,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는 심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 조로 재중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 내수와 관계없이 진출기업의 생산량 감소로도 대중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 예컨대 컴퓨터 부품은 심양의 삼보컴퓨터의 생산 중단으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국내기업 CKD<sup>28)</sup> 수출 포기과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의 일괄생산 체제 가동으로 관련 부품의 대중 대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의 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수송 기계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역수입이 확대하고 있다.

## 2). 원한 강세 또는 환율의 영향

최근 원한 강세는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중 무역흑자가 감소된 2006년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하는 7.4% 평가절산 되었으나,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 경우 각각 20.6%와 2.4% 평가 절하되었다. 또한 원화 환율은 2001년 이후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가고 이Y으며, 이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2001년 155.8원에서 2006년 119.3원으로 평가절상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의 대 일본 및 대 대만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8.6%와 1.4% 증가하였으나, 대 한국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6.9%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

28) Complete Knockdown: 완성품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부품 및 소재의 대 중국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원인의 하나로도 추정되고 있다.<sup>29)</sup>

###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국은 WTO 가입 양허 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한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HS<sup>30)</sup> 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다시 인하했다. 농산물과 중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각각 15.2% 와 8.95%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WTO 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 9.8%로 5.5% 인하되었다.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당초 중국이 WTO 가입 양허 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 중국의 관세 수준은 개발도상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수준 3.9%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 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관세 이외에 13-17%의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담배 30-45%, 주류 5-25%)도 부과한다. 특히 아직도 자동차부품과 철강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sup>31)</sup>

또한 한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많이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반덤핑, 기술 장벽 TBT, 검사 검역조치(SPS)<sup>32)</sup> 및 기타 비관세장벽을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장벽들을 설치하고 있다.

기술적 무역장벽은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큰 위협이 되고 있

29) KIEP, "2006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p.13.

30) 통합물품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31) KIEP,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73

32) SPS: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 될 당시, 미국이 각국에게 개별적인 협정 안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만들어진 협정이다.

다. 한국의 기술적 장벽에 큰 영향을 받는 대 한국 수출 상품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의약 및 의약 원료 등으로 그 중에서 신선한 과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고기류 제품 및 약품은 정상적으로 대 한국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 측은 위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은 주로 검사, 검역 규제 및 안전 표준으로 제한하고 있다.<sup>33)</sup>

#### 4).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

2001년 이후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대수입이 확대수입이 확대되는 품목은 IT 관련 제품이며,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이다. 또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잉여물량의 수출증가는 철강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IT 산업의 생산 확대로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반도체 생산증가율은 각각 23.9%와 344.7%, 휴대폰 생산증가율은 각각 30.0%와 5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IT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따라 관련 중국산 제품의 재 중국산 제품의 대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잉여 물량의 대 중국 수출이 확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은 철강제품으로, 중국의 철강 산업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설비 능력 증가로 2005년부터는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어 철강제품은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잉여물량 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의 위치(중국 철강 수출 중 21%점유)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내 수입 금강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sup>34)</sup>

33) 최경환, “한·중 산업시설 및 정책 비교”, [산업자원부], 2008, p.104-110.

34) 홍창표, “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2007,p.22.

## 제2절.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어느 국가의 협상자이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며, 이것이 상호이익을 만영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한중 양국이 먼저 기존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기에 정치적 상호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상대방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더 많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공동이익의 원칙이다.

### 1. 중국의 대응 방안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을 먼저 해결하고, 서비스분야와 투자자유화협상은 나중에 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개방에 민감한 자국 서비스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 있어서도 이미 체결 FTA 상대국은 재부분의 제조업이 중국보다 낙후하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과의 FTA 체결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는 별로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FTA 체결 시 취약부분인 금융, 서비스분야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체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선 국가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기반이 조성되기도 전에 한국에 많은 부



분을 양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을 FTA 대상에 제외시킬 경우는 한국의 포괄 협상의지의 지속될 경우에는 FTA 지체가 타결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감 품목인 1차 산업에 대한 양보안 으로서 금융, 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내세워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체결을 고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FTA 체결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유럽, 나아가 일본까지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지체로 인한 대가가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전문가보다 아직 FTA에 대해 아는 바가 적 으며, 특히 FTA의 발전 동향과 추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영 전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FTA로 중국산업의 기반이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대책, 제품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인증 및 검사절차의 강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보호, 무역투자관련 법규와 상관행의 사건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통상 담당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략 도 견비하고 있어야 한다, 경험 있고 유능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육 연구기관의 협력성이 추구한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국제통상 협상전문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한중이 FTA를 체결한 이후 한중 양국 무역관계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 2.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일 부에서 제기되는 중국식의 협상방식 즉 한중 FTA은 포괄적 협상을 통해 양

측의 이익을 극대화 하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식은 반드시 학계, 산업계 특히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모두 포괄하며 최종적으로 일괄적인 협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농협 시장 개방, 민감 품목과 예외 품목의 선정,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 중국은 금융, 통신산업의 개방으로 중국경제의 기반이 위협에 전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오직 협상의 범위를 넓혀야 문제에 0한 타결이 가능해지면,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히 넓힐 수 있다. 협상 중에 자타가 동인하는 한국의 취약한 농업에 대한 대응카드를 당여니 중국의 금융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중국 시장변화에 적합한 수출상품의 개발

수출구조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점을 상기할 필요가 이다.

수익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 증가품목에 대한 대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 관섬유, 반도체(IC), 프린터 등 IT 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 소

재 및 부품 수입이 확대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sup>35)</sup>

## 2). 현지화

중국의 국내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현재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대 중국 투자를 고려하여 현지상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보다 한발 앞서 시전에 중국의 수입대체 현상을 미리 감안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sup>36)</sup>

## 3). 무역과 투자의 결합

중국이 세계유소 대국적기업의 생산 및 대국적 구매기지로 전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 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 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 분야와 유통 분야에 대한 nwkwlscnf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내의 중국계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35) 한국무역협회,[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동향분석실),2007년 3월,p.10

36) KIEF,[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p.73

#### 4). 통상 협상능력의 강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가 인정하는 규제조지인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면 최근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한국 제품의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플라스틱 관력제품, 화학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제품의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 저가 수출을 지양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압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쿼터대상 품목의 연간수입쿼터를 매년15%씩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이 양한 한국기업으로서는 완성차 투자를 부품수출로 DUSRF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up>37)</sup>

---

37) 양평섭·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대외경제정치연구원], 2007.p.24

## 제5장 결론

중국WTO가입 후 각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동남아 주변국가간의 교류이면, 그 중 한국간의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로 한·중 양국간의 자유무역의 체결이 더욱 이슈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한·중 양국간의 자원, 기술, 자본, 시장 등 분야 강화의 상호 보완 및 경제력을 키웠다. 제조업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으로 양 국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한·중 FTA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양국 FTA의 체결은 각국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의 경제 협장을 더욱 더 추진강화 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 한국간의 무역 차이를 감소시키고 또한 한국이 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가속 성장한 경제를 의존하여 자국의 경제 및 성장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맥락을 둔다.

양국은 또한 FTA를 통하여 안전한 수출입시장을 확보함으로써, 한·중 양국가간의 산업의 발전과 대외무역투자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상호보안성과 경쟁으로 인하여 약국산업의 불균형을 심화되어 FTA의 체결에 조심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농업이 한국농업시장에 충격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한국제조업이 자국의 진일보적인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만약 FTA 체결 시 취업 포함한 일시적인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다소 보수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양국은 일단 다소 성숙한 산업을 위주로 협상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약국은 일단 상호 우위적인 주요 산업을 시작으로 진행하여 협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양국은 일단 상호 우위적인 주요 산업을 시작으로 진행하여 협상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초기에 선탄, 철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협작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한·중 양국도 상

호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중 전자산업 공동체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든 조건이 충족해지는 시기를 노려 타 영역의 발전을 통해 일석이조의 자유무역협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실력으로부터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중 FTA 체결은 앞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는 한·중 FTA 방안을 구축하여 체결한다면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적, 지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한·중 산업이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향후 한·중 산업교류 연구 및 한·중 산업 전략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참고문헌:

- 김세영, 신상식,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도서출판, 2003.8.
- 김영미, “한·중 FTA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2005.
- 박순찬, “한국 FTA추진의 전망과 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2004.5.
- 양평섭, 「中國探究」피해 최소화 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 양평섭·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대외경제정치연구원, 2007.
- 유진석, 박승호, “최근 한중무역 현황과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2007-1.
- 이근영,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009.7.
- 이성비, “중국의 FTA 추진실적에 따른 한·중 FTA 전략”,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치훈, “2009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요인 점검”, 「Issue Analysis」, 2009.
- 정환우, “2008년 한·중간 기동단계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2008.
- 최경환, “한·중 산업시설 및 정책 비교”, 산업자원부, 2008.
- 홍창표, “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동향분석실, 2007년 .

### 2. 국외문헌:

- 蔡鴻鵬, “中新FTA對中韓FTA的示”, 上海社會科學院APECT研究中心,

### 3. 웹사이트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 [www.fta.kita.net](http://www.fta.kita.net)

FTA 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http://www.ftahub.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국회도서관 [www.nanet.go.kr](http://www.nanet.go.kr)

농림부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무역위원회 [www.ktc.go.kr](http://www.ktc.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http://www.seri.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roeaexim.go.kr](http://www.kroeaexim.go.kr)

중국국가통계국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중국 상무부 [www.mofcom.gov.cn](http://www.mofcom.gov.cn)

중국세관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중국 인민은행 [www.pbc.gov.cn](http://www.pbc.gov.cn)

중앙 인민정부 [www.gov.cn](http://www.gov.cn)